

10-22(통권 제 22 호)

2010. 10. 1



# 동북아 REVIEW

ASEAN 국가들의 FTA 동향과 일본의 대응



□ ASEAN 국가들의 FTA 동향과 일본의 대응<sup>1)</sup>

○ 점차 확대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 전 세계에서 발효되고 있는 FTA 건수는 2010년 6월 현재 187건에 달함
  - 2000년대 들어서 FTA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발효된 FTA 건수는 121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FTA는 증가 추세
  - 2007년 9건, 2008년 15건, 2009년 14건의 FTA가 발효됨

< 세계의 연대별, 지역별 FTA 발효 건수 >

	유럽,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횡단	합계
1950년대	1				1
1960년대	1	1			2
1970년대	2	1	2	2	7
1980년대		2	2	2	6
1990년대	40	6	3	1	50
2000년대	47	15	28	31	121
합계	91	25	35	36	187

자료 : WTO 홈페이지, JETRO 「세계 무역투자 보고」(2010) 재인용

주 : 본 자료에서는 WTO 자료에 근거, 관세동맹, 경제연계협정(EPA)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임

○ FTA 시대를 맞고 있는 ASEAN

- 올해 들어서 ASEAN<sup>2)</sup> 원가맹국 5개국의 역내 무관세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역내 시장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당초 해외 자본 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1993년 발효된 아세안 역내 FTA(AFTA)는 이후 역내 국가간 평균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음

1) 본 자료는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가 발표한 2010년판 「세계 무역투자 보고」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내용임

2) 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지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된 지역협력기구로, 이후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97), 미얀마('97), 캄보디아('99)가 가입하면서 현재 10개국으로 확대됨

- 아세안 원가맹국 5개국은 올해부터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순차적인 무관세화를 추진하기로 함
- 아세안 역내의 무관세화 실시와 더불어 최근 아세안+1 FTA도 전부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고 있음
  - 아세안은 2000년대 이후 중국('04), 한국('07), 일본('08), 인도('10)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변 지역과 순차적으로 FTA를 발효시킴
  - 올해 들어 아세안+1 FTA가 전부 발효되면서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일본은 물론 주변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AFTA 및 ASEAN+1 FTA<sup>3)</sup> 추진 현황 >

FTA		발효 연도	추이 및 주요 내용
아세안 (AFTA)		1993	- 아세안 가맹국은 2010년부터 거의 모든 품목 (99%) 무관세화 (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부터 실시) - 평균 관세율은 1993년 12.8%에서 2009년 0.9%로 하락
아 세 안 + 1	중국	2004	- 2004년 농수산물 분야, 2005년 비농수산물 분야의 관세 삭감 - 2010년부터 원가맹국은 약 90%의 품목에서 무관세화 추진
	한국	2007	- 2010년부터 아세안 원가맹국과 약 90%의 품목에서 무관세 - 베트남 2016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부터 대학의 품목을 무관세화 실시
	일본	2008	-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발효, 나머지 국가는 순차적 발효 예정
	인도	2010	- 아세안 원가맹국과는 NT1 품목 2013년, NT2 품목 2016년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서는 NT1 2018년, NT2 품목은 2021년에 무관세화 실시
	호주/뉴질랜드	2010	- 발효와 동시에 호주는 96.4%, 뉴질랜드는 84.7% 무관세화 - 아세안 원가맹국은 2013년부터 약 90% 품목에서 무관세화

자료 : JETRO 「세계 무역투자 보고」 (2010) 및 기타 자료 종합

주 : NT1, NT2는 전체 품목 중에서 약 90%의 일반 품목(Normal Track)에 대한 분류 방법이며, 나머지 약 10%는 민감 품목(Sensitive Track)으로 구분함

- 그동안 선진국 시장에 주로 의존하던 아세안 국가들은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생산과 수요 확대를 활용, 가맹국들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함
  - 아세안 가맹국들은 FTA를 통해 역내의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 'ASEAN+1 FTA'란 아세안 국가와 일본, 중국, 한국, 호주·뉴질랜드, 인도 간의 FTA를 지칭함

- 이미 발효 중인 중국, 한국, 일본과 더불어, 올해에 인도, 호주 등과 FTA가 발효되면서 아세안에서 주변 시장으로의 무관세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 아세안의 FTA 확대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일본은 중국, 한국 등과 더불어 FTA에 의한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며, 최근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 비해 일본은 뒤쳐진 상황임
  - 한국은 미국과 서명한 FTA가 발효되고 최근 진행 중인 EU와의 FTA가 발효된다면 FTA 커버율은 각각 9.7%와 11.5%가 증가해 일본을 능가함

**< 주요국의 FTA 커버율 (2009년) >**

(단위 : %)

국가	FTA 커버율 <sup>(*)</sup>			무역액 상위 지역/국가 (왕복)		
	왕복	수출	수입	제1위	제2위	
일본	16.5	16.3	16.6	ASEAN (14.0)	스위스 (1.1)	
한국	14.4	14.8	14.2	ASEAN (10.9)	인도 (1.8)	
중국	11.2	10.1	12.6	ASEAN (9.6)	칠레 (0.8)	
미국	34.4	40.1	30.5	NAFTA (28.1)	싱가폴 (1.5)	
EU (총합)	73.8	75.6	72.0	EU (65.1)	EFTA (4.1)	
아세안 가맹국	싱가폴	65.9	66.3	65.4	ASEAN (27.3)	중국 (10.1)
	태국	55.8	52.2	59.8	ASEAN (20.7)	일본 (14.3)
	인도네시아	63.9	63.4	64.6	ASEAN (24.5)	일본 (13.3)
	말레이시아	60.2	59.5	61.1	ASEAN (25.6)	중국 (13.0)
	필리핀	51.5	45.2	57.2	ASEAN (20.6)	일본 (14.2)

자료 : JETRO 「세계 무역투자 보고」 (2010) 및 기타 자료 종합

주\*) : FTA 커버율이란, 해당국 무역 수치에서 차지하는 FTA 발효국의 무역 수치를 합한 비중

- 아세안 역내 FTA가 본격 발효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아세안 역내의 분산된 생산 기지를 통합하여 집중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AFTA가 본격화되던 2003년 이전에는 아세안 시장은 국가별 관세 장벽으로 분리된 시장이어서 제품별로 낮은 관세 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함
  - 하지만 FTA 확대로 역내 시장의 통합이 이뤄짐에 따라 생산 기지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생산체제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아세안+1 FTA를 활용하여 일본 기업들은 아세안 역내의 생산 거점을 통한 인도 등 주변국의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아세안+1의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2010년부터 무관세화가 진전되면서 아세안에 입지하는 일본 기업들은 주변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아세안-인도, 아세안-중국 FTA에 의해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세안+1 FTA를 활용하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 시사점

- 향후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세안 지역의 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및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아세안 지역에서의 생산 거점의 재배치를 통하여 주변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일본과 중국은 아세안+1 FTA를 계기로 아세안 시장을 활용한 적극적인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됨
- 현지 진출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아세안 FTA 활용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정책적인 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함
  - 한-아세안 FTA 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관세율·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 발급 절차 등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현지 기업과 바이어들의 FTA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요구됨
- 한-아세안 투자 협정도 2009년에 완료됨에 따라 상품 수출뿐 아니라 현지 법인에 의한 지분 투자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을 다져야 함
  - 상품 수출뿐 아니라 금융, 통신, 운송 등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됨

허만울 연구위원(myhur112@hri.co.kr, 02-2072-6236)